

한국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 영향요인의 남녀차이

전경숙¹, 박소연², 조선희^{1*}

¹목포대학교 간호학과, ²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Gender Differences in Correlates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Gyeong-Suk Jeon¹, So-Youn Park², Sunhee Cho^{1*}

¹*Department of Nursing, Mokpo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yonggi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gender differences in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Th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data from the 2009 Korean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Logistic regression models and Wald chi-square statistics were used to identify the difference in the coefficients between the gender-specific models.

Female students reported higher prevalence for depression(42.9%) than male students(31.4%), as well as higher level of suicidal ideation(girls:23.1%, boys:14.7%). Lower school achievement, worse self-rated health status, more conflict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 of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The impact of school achievement and conflicts with friends on mental health was greater among girls than boys.

We suggest that the efficient strategies focusing on the gender differences should be established to improve mental health among Korean adolescents.

Key Words :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Gender Difference, Korean Adolescent

I. 서론

한국인의 자살률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이후부터 급증하여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우울과 자살은 한국인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인의 자살률은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3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6배에 해당하며[1], 이는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한국인의 전체 자살률도 높지만, 특히 청소년의 자살률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어 사회 경제적인 중대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발간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연구보고서[2]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청소년(15~19살) 사망자 1,034명 가운데 자살자는 292명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28%에 이르며, 이 비율은 2000년 13.6%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우울감으로 알려져 있다[3]. 그러나 청소년기의 우울은 성인기의 그것과는 달리 우울이 드러나지 않고 비행 행동이나 신체적 증상 호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를 방지할 경우 자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우울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함에도 대부분 조기 발견에 실패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2].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관계 스트레스[3], 따돌림과 학교폭력 등의 또래관계 스트레스[4][5], 교사관계 스트레스[6][7] 등이 있고, 그 외에도 가구의 경제적 상태[2][3], 부모와의 동거 여부[2]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우울과 자살의 성별 차이를 탐색한 연구 결과,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고[8],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가 더 많이 나타난다[9]. 그러나

실제 자살한 청소년은 남학생이 더 많다[10]. 학교폭력에 의한 영향에서도 성별 차이가 존재한다. 즉, 학교폭력 비율은 남자 청소년이 더 높지만[11], 이로 인한 우울이나 자살시도 등의 증상은 여자 청소년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자살의 원인이 우울감에만 있지 않고 사회 환경적 요인이 적지 않은 작용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은 우울과 자살생각이 매우 빈번하며 그 현상과 영향 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고위험군의 특성을 규명하고, 특히 그 영향 요인의 성별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의 위험군 특성을 구별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 관련 요인에서 어떠한 성별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도 관계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들이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나온 전국 규모의 대단위 청소년 조사 자료를 이차적으로 분석하여 남녀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의 실태와 그 영향 요인을 탐색하며 그 요인들의 성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자살 위험요인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 수준 및 이의 영향 요인을 탐색하고 우울 및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의 성별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청소년의 성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09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2009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는 전국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16개 시·도내의 시·군·구를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분류하여 45개 시·군·구를 집락화 하였으며 집락별 할당된 표본 수만큼 계통추출법으로 400개의 중학교와 400개의 고등학교를 추출하였다. 2단계로 추출된 표본학교의 각 학년 당 1개 학급을 표본학급으로 선정하여 학교 당 3개의 표본 학급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학급의 학생 전원은 표본학생이 되었다. 장기결석, 특수아동 및 문자해독 장애 학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총 표본대상 76,937명에서 실제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75,066명으로 조사대상자의 응답율은 97.6%였다 [13]. 본 연구를 위한 최종 분석 대상자는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전체조사대상자 중 주요변수(주관적 사회경제적 수준, 부의 학력, 모의 학력, 가족 풍요도)에 있어서의 결측 사례를 제외한 후 총 69,196명(남자 36,137명, 여자 33,060명)으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우울 및 자살생각

우울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1) '최근 12개월 동안 느낀 적이 없다', (2) '최근 12개월 동안 느낀 적이 있다'의 응답이 주어진 가운데 (2)에 응답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살생각 역시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최근 12개월 동안 생각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로 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변수에는 거주 지역, 학년, 학업성취도, 부모와의 동거 형태, 주관적 가구 경제수준을 포함하였다. 거주 지역은 군지역, 대도시, 중소도시로 구분하였으며 학업성취도는 '최근 12개월 동안, 학업 성적'을 (1) '상', (2) '중상', (3) '중', (4) '중하' 및 (5) '하'의 5개 항목에 응답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같이 산다', '아버지와만 같이 산다', '어머니와만 같이 산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다', '친부(모) 및 양모(부)와 동거한다'의 5가지 경우로 분류하였으며 '친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룹을 준거 집단으로 하였다. 학생이 인지한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은 상, 중상, 중, 중하, 하의 5개의 응답항목을 '상(상, 중상)', '중', '하(중하, 하)'의 세 그룹으로 재분류하였으며 '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3) 건강관련 특성

주관적 건강 상태는 '평상시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 '매우 '건강한 편이다', (2) '건강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5) '매우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의 5개 응답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청소년

년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측정은 일차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라고 질문하여 '(1)대단히 많이 느낀다', (2) '많이 느낀다', (3) '조금 느낀다', (4) '별로 느끼지 않는다' (5)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5개의 응답항목 중 (1)~(4)에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주어졌으며 이에 대하여 (1) '부모와의 갈등(간섭, 차별대우, 지나친 기대, 무관심, 학대 등), (2)'가정형편', (3)'선생님과의 갈등', (4)'교우관계(폭력, 따돌림, 선후배 관계, 이성문제, 친구와의 갈등 등)' (5)'성적(시험, 입시), 진로에 대한 부담, (6)'건강문제' 및 (7)'외모(키, 체형, 생김새 등)'의 응답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질문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에 '전혀 느끼지 않는다'에 응답한 학생은 '스트레스가 없는 그룹'으로 분류하여 준거집단으로 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청소년 온라인 보건행태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식습관, 손상예방, 약물, 성 행태, 정신보건, 구강보건, 개인위생, 아토피·천식, 인터넷 중독, 건강형평성 등을 14개영역의 12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문항 및 지표는 국내·외 자료에 근거를 두고 각 영역별 분과 자문위원회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조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진행 지침에 따라 (표본학급 담임 교사 입실 불가능, 학생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화면 보기 금지, 설문문항 질문에 관한 답변 금지 등) 조사지원 담당교사에 의해 수행되었다.

5. 분석방법

청소년의 성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의 분포를 살피고 이러한 특성에 따른 우울 및 자살생각의 유병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Chi-square test 및 t- test를 활용하였다. 남녀 청소년의 자살 및 우울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성별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상대 위험비(Odds ratio)와 95%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울 및 자살생각에의 영향요인의 정도와 방향이 남녀 청소년에 따라 유의하게 다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남녀의 로짓계수(Logit coefficients)를 Wald Chi-square 분석을 이용하였다.

Chi-square test 및 t-test의 유의수준은 0.05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상관분석 및 공선성 검정 (Tolerance and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배제할 수 있었다. 모든 회귀분석 모형은 Hosmer-Lemeshow 모형 적합도 검정 결과 예측값과 관찰값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시에는 표본추출률과 조사완료율을 보정하기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였으며 통계 프로그램은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연령은 각각 15.09±1.75세, 15.07±1.75세이었으며 청소년 대부분은 대도시(54.8%) 및 중소도시(40.0%)에 거주하였으며 시골 지역 거주 청소년은 단 5.1%에 해당하였다. 남학생의 12.8% 및 여학생의 9.9%만이 자신의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응답하였으며 '낮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11.6%였다<표 1>. 청소년의 86.9%는 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9.1%는 편부모와 거주하였다. 한편 남학의 3.0%, 여학생의 2.6%가 편부와 거주하였으며 여학생의 7.2%, 남학생의 5.7%가 편모와 거주하였다. 이러한 부모와의 거주 형태

에 있어서 성별차이는 유의하였다($p<.001$). 대부분의 학생은 '매우건강' 또는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건강하지 않다' 및 '매우건강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남녀 학생도 각각 6.5% 및 9.3%였다. 전체적으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자신을 건강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별차이가 유의하였다($p<.001$).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5.2%가 성적 및 시험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하였으며 이 경우 여학생은 56.7%, 남학생 53.8%였다. 다음은 청소년의 15.2%가 간섭, 차별대우, 지나친 기대, 무관심, 학대 등의 '부모님과 갈등'을 원인으로 꼽았으며 이 경우 남학생 16.1%, 여학생 14.3%였다.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 원인은 키, 체형, 생김새 등의 '외모'가 스트레스 원인이었으며 이 경우 여학생이 12.6%, 남학생이 9.7%에 해당하였다. 네 번째로는 친구들과의 갈등, 학교 폭력 및 따돌림 등의 '교우관계'이었으며 이 경우에도 여학생은 9.1%, 남학생은 8.5%였다<표 1>.

2. 남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및 자살생각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건강관련 특성에 따른 남녀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의 분포를 살펴본다<표 2>. 전체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 수준은 각각 36.9% 및 18.7%였다. 성별로는 우울 및 자살생각 모두에서 유의한 성별차이를 보였는데($p<.001$), 남학생의 31.4% 및 여학생의 44.3%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남학생의 14.9% 및 여학생의 23.1%가 '최근 12개

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거주 지역을 제외한 학년, 학업성적, 부모와의 동거여부,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및 스트레스 원인에 따라 우울 및 자살생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남녀학생 모두에서 중학 1학년에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학년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자살생각은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가장 낮았으며 중학 1학년 및 고등학교 고학년에서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 학업성적이 최하위인 남녀학생의 우울 45.6% 및 자살생각 25.7% 수준은 학업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남녀학생의 우울 31.0%, 자살생각 15.7%에 비해 높으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01$). 또한 두 분의 친부모와 같이 사는 청소년은 우울 및 자살생각이 각각 35.9% 및 17.8%로 가장 낮았으며 아버지와 혼자 사는 청소년은 우울 44.7%, 자살생각 26.2%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부모와의 동거형태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주관적 경제수준에 따라서도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주관적 경제수준이 '하'에 해당하는 경우 우울 44.3% 및 자살생각 25.1%로 다른 그룹에 비해 높았다. 또한 청소년은 자신의 건강이 불건강하다고 평가한 경우는 건강하다고 평가한 경우보다 높은 우울 및 자살 수준을 나타냈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이 친구들과의 갈등, 학교 폭력 및 따돌림 등의 '교우관계'에 있을 경우 우울은 51.8% 자살생각은 28.7%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어떠한 스트레스 원인에 비해 우울 및 자살생각 수준이 높았다($p<.001$).

<표 1> 남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

	남 n(%)	여 n(%)	p
N=	36,137	33,060	
연령 (mean±SD)	15.09±1.75	15.07±1.75	.067
거주지역			
농어촌	1,862(5.2)	1,684(5.1)	.841
대도시	19,839(54.9)	18,103(54.8)	
중소도시	14,436(39.9)	13,272(40.1)	
학년			
중학교 1학년	5,983(16.6)	5,551(16.8)	.643
중학교 2학년	6,179(17.1)	5,666(17.1)	
중학교 3학년	6,208(17.2)	5,616(17.0)	
고등학교 1학년	6,160(17.0)	5,498(16.6)	
고등학교 2학년	5,952(16.5)	5,482(16.6)	
고등학교 3학년	5,656(15.7)	5,246(15.9)	
주관적 학업성취도**			
상	4,624(12.8)	3,280(9.9)	< .001
중상	8,764(24.3)	8,050(24.4)	
중	9,809(27.1)	8,985(27.2)	
중하	8,727(24.1)	8,931(27.0)	
하	4,213(11.7)	3,812(11.5)	
부모와 동거여부**			
양부모와 동거	31,604(87.5)	28,558(86.4)	< .001
부(父)만 동거	1,084(3.0)	873(2.6)	
모(母)만 동거	2,065(5.7)	2,365(7.2)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	711(2.0)	644(1.9)	
친모, 계부(또는 친부, 계모)와 동거	671(1.9)	620(1.9)	
주관적 가구경제상태**			
상	11,581(32.1)	8,527(25.8)	< .001
중	16,487(45.6)	16,806(50.8)	
하	8,069(22.3)	7,727(23.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	7,780(21.8)	4,545(13.7)	< .001
건강	17,285(47.8)	15,487(46.8)	
보통	8,623(23.9)	9,966(30.1)	
건강하지 못함	2,175(6.0)	2,961(9.0)	
매우 건강하지 못함	173(0.5)	101(0.3)	
스트레스 원인			
스트레스 없음	1,118(3.1)	408(1.2)	< .001
부모와의 갈등	5,819(16.1)	4,727(14.3)	
가구경제상태	1,130(3.1)	1,044(3.2)	
교사와의 갈등	1,153(3.2)	535(1.6)	
따돌림/학교폭력/친구와의 갈등	3,083(8.5)	3,022(9.1)	
성적/시험	19,459(53.8)	18,754(56.7)	
건강문제	880(2.4)	414(1.3)	
외모(신체상/키/기타)	3,494(9.7)	4,154(12.6)	

<표 2> 남녀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및 건강 관련 특성에 따른 우울 및 자살생각의 분포율

변수	대상자 수		우울				자살생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n	n	%	p	%	p	%	p		
우울 및 자살생각 분포율	36,137	33,060	31.4		42.9		14.7		23.1	
거주지역										
농어촌	1,862	1,684	31.4	.165	44.3	.043	14.9	.631	24.3	.407
대도시	19,839	18,103	31.8		43.4		14.8		23.2	
중소도시	14,436	13,272	30.9		42.1		14.4		22.9	
학년										
중학교 1학년	5,983	5,551	26.8	<.001	39.0	<.001	14.7	<.001	25.4	<.001
중학교 2학년	6,179	5,666	28.0		38.8		14.8		23.3	
중학교 3학년	6,208	5,616	30.7		41.5		14.1		22.8	
고등학교 1학년	6,160	5,498	31.7		44.6		13.6		22.8	
고등학교 2학년	5,952	5,482	33.5		44.1		14.7		22.3	
고등학교 3학년	5,656	5,246	38.3		50.2		16.4		22.2	
주관적 학업성취도										
상	4,624	3,280	28.9	<.001	34.1	<.001	13.3	<.001	19.1	<.001
중상	8,764	8,050	28.6		39.1		12.7		19.8	
중	9,809	8,985	30.3		42.2		13.9		21.1	
중하	8,727	8,931	33.3		45.9		15.7		25.6	
하	4,213	3,812	38.7		53.6		19.7		32.4	
부모와 동거여부										
양부모와 동거	31,604	28,558	30.7	<.001	41.6	<.001	14.4	<.001	21.6	<.001
부(父)만 동거	1,084	873	36.7		54.6		18.2		36.1	
모(母)만 동거	2,065	2,365	34.9		50.7		15.4		29.9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	711	644	35.6		54.0		17.2		33.5	
친모, 계부 (또는 친부, 계모)와 동거	671	620	39.4		49.4		18.5		36.5	
주관적 가구경제상태										
상	11,581	8,527	30.0	<.001	40.7	<.001	13.4	<.001	21.1	<.001
중	16,487	16,806	29.4		40.2		13.3		20.4	
하	8,069	7,727	37.5		51.4		19.1		31.4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	7,780	4,545	26.4	<.001	34.5	<.001	10.5	<.001	17.7	<.001
건강	17,285	15,487	28.7		37.7		12.7		18.4	
보통	8,623	9,966	37.3		48.5		18.7		27.5	
건강하지 못함	2,175	2,961	45.2		63.6		27.0		40.3	
매우 건강하지 못함	173	101	61.3		79.0		45.1		57.4	
스트레스 원인										
스트레스 없음	1,118	408	13.9	<.001	13.2	<.001	5.9	<.001	6.4	<.001
부모와의 갈등	5,819	4,727	37.3		51.6		22.4		35.0	
가구경제상태	1,130	1,044	43.6		55.5		21.3		37.6	
교사와의 갈등	1,153	535	33.6		49.9		16.4		27.0	
따돌림/학교폭력/친 구의 갈등	3,083	3,022	44.3		59.4		22.3		35.2	
성적/시험	19,459	18,754	28.3		38.1		11.7		17.7	
건강문제	880	414	28.3		42.8		9.9		22.9	
외모(신체상/키/기타)	3,494	4,154	29.5		42.0		12.8		22.8	

3. 우울 및 자살생각 영향 요인의 남녀 차이

<표 3>은 남녀 학생을 따로 하여 우울 및 자살생각에 대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또한 남녀 각 모델의 영향요인 간의 회귀계수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Wald chi-square test를 통해 확인하여 제시하였다.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 수준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중학교 1학년에 비해 중학교 3학년에서부터 남녀학생의 자살 위험이 약 1.2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약 1.7배였다. 반면 자살생각에의 학년의 영향은 우울에서 나타난 결과와는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학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남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 1학년에 비해 자살생각 위험이 약 0.9배 낮았으나 고등학교 3학년은 약 1.2배 높았다. 한편 여학생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준거로 했을 때 중학교 2학년 이상에서의 자살생각 위험이 약 0.8-0.9배 낮게 나타났다. 결국 자살생각에 있어서의 학년의 영향정도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학업 성취도 역시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영향의 정도가 여학생에서 더 컸다($p<.01$). 남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중하' 및 '하' 수준에 있을 경우 '상'에 비해 우울 위험이 각각 1.14 및 1.37배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중상', '중', '중하', 및 '하'인 경우 각각 우울의 위험이 1.19배, 1.38배, 1.50배 및 1.88배로 계단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나 학업성취도의 우울에의 영향정도에 있어서 성별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업성취도의 자살생각에의 영향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도가 '하'인 남학생은 '상'인 남학생에 비해 자살생각 위험이 1.32배(95%

CI: 1.17-1.49)였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중하' 및 '하'그룹에 속한 경우 자살생각 위험이 1.31배 및 1.57배 높았다. 결국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정도에 있어서도 남녀차이가 유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p<.01$).

부모와의 동거유형 역시 남녀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영향의 크기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남학생의 경우 '친부(모)+양모(부)'와 같이 사는 경우에 '친부모'와 같이 사는 남학생에 비해 우울 위험이 1.25배(95% CI: 1.06-1.47)인 반면, 여학생에서는 '한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와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경우'의 우울 위험이 약 1.2-1.3배였다. 여학생 그룹에서 부모와의 동거유형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우울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욱 컸다. 즉 '친부모'와 같이 사는 여학생에 비해 '한 부모'와 사는 여학생 및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여학생의 자살생각 위험은 약 1.3-1.5배 이었으며 '친부(모)+양모(부)'와 같이 사는 경우에는 자살생각 위험이 1.7배(95% CI: 1.43-2.02)였다.

청소년이 평가한 주관적 가구경제수준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에서 경제수준이 '중'그룹인 경우 우울 및 자살생각의 위험이 '상'그룹의 남녀학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하'그룹에 속한 경우는 자살생각의 위험이 약 1.2배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남녀학생 모두에서 유의하게 우울 및 자살생각에 영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수준을 '매우 좋다'라고 평가한 남녀학생 그룹을 준거로 했을 때 '좋다', '보통', '좋지 않다', 및 '매우 좋지 않다' 고 평가한 남녀학생에서 우울 및 자살생각 위험이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표 3> 남녀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영향요인^a

변수	우울		성별 차이	자살생각		성별 차이
	남 OR(95%CI)	여 OR(95%CI)		남 OR(95%CI)	여 OR(95%CI)	
거주지역						
농어촌						
대도시	1.08(0.97-1.20)	1.01(0.90-1.12)		1.05(0.92-1.21)	1.01(0.89-1.14)	
중소도시	1.02(0.92-1.14)	0.95(0.85-1.05)		1.01(0.88-1.16)	0.97(0.85-1.09)	
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1.04(0.96-1.13)	0.98(0.91-1.07)		0.98(0.88-1.08)	0.88(0.80-0.96)	
중학교 3학년	1.20(1.10-1.30)	1.17(1.08-1.26)		0.92(0.83-1.02)	0.90(0.82-0.98)	
고등학교 1학년	1.23(1.16-1.36)	1.23(1.13-1.33)		0.88(0.79-0.98)	0.82(0.75-0.90)	
고등학교 2학년	1.36(1.26-1.48)	1.23(1.14-1.34)		0.97(0.88-1.08)	0.83(0.76-0.91)	**
고등학교 3학년	1.73(1.60-1.88)	1.65(1.52-1.79)		1.16(1.04-1.28)	0.86(0.78-0.95)	**
주관적 학업성취도						
상						
중상	0.97(0.90-1.05)	1.19(1.09-1.30)	**	0.94(0.84-1.05)	1.02(0.92-1.14)	
중	1.06(0.97-1.14)	1.38(1.26-1.51)	**	1.04(0.93-1.16)	1.14(1.03-1.27)	
중하	1.14(1.06-1.23)	1.50(1.38-1.64)	**	1.09(0.98-1.21)	1.31(1.18-1.45)	*
하	1.37(1.24-1.50)	1.88(1.70-2.08)	**	1.32(1.17-1.49)	1.57(1.39-1.76)	*
부모와의 동거여부						
양부모와 동거						
부(父)만 동거	1.08(0.95-1.23)	1.33(1.15-1.53)	*	1.03(0.87-1.21)	1.49(1.28-1.72)	**
모(母)만 동거	1.05(0.95-1.16)	1.21(1.10-1.32)	*	0.93(0.82-1.06)	1.24(1.12-1.36)	**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	1.09(0.93-1.28)	1.31(1.11-1.54)		1.04(0.85-1.27)	1.43(1.20-1.70)	*
친모, 계부 (또는 친부, 계모)와 동거	1.25(1.06-1.47)	1.14(0.96-1.34)		1.07(0.88-1.32)	1.70(1.43-2.02)	**
주관적 가구경제상태						
상						
중	0.85(0.81-0.90)	0.81(0.77-0.86)		0.90(0.84-0.97)	0.84(0.79-0.90)	
하	1.03(0.96-1.10)	1.02(0.95-1.09)		1.17(1.07-1.27)	1.18(1.09-1.28)	
주관적 건강상태						
매우 건강						
건강	1.10(1.03-1.17)	1.11(1.04-1.19)		1.21(1.13-1.34)	1.04(0.95-1.14)	*
보통	1.54(1.43-1.64)	1.66(1.54-1.78)		1.84(1.67-2.01)	1.70(1.55-1.86)	
건강하지 못함	2.04(1.84-2.25)	2.87(2.59-3.17)	*	2.89(2.56-3.27)	2.86(2.56-3.19)	
매우 건강하지 못함	3.65(2.66-5.01)	6.27(3.82-10.28)		6.16(4.48-8.47)	5.71(3.75-8.68)	
스트레스 원인						
스트레스 없음						
부모와의 갈등	3.33(2.78-3.99)	5.70(4.24-7.66)	**	3.86(2.98-5.00)	6.33(4.22-9.51)	*
가구경제상태	3.80(3.07-4.69)	5.17(4.24-7.66)		3.17(2.36-4.24)	5.37(3.52-8.21)	*
교사와의 갈등	2.77(2.24-3.42)	5.06(3.61-7.09)	**	2.69(2.00-3.62)	4.33(2.77-6.77)	
따돌림/학교폭력/ 친구와의 갈등	4.34(3.60-5.23)	7.56(5.60-10.21)	**	3.67(2.82-4.79)	6.27(4.16-9.44)	*
성적/시험	2.20(1.84-2.62)	3.27(2.44-4.39)	*	1.85(1.43-2.39)	2.83(1.89-4.24)	
건강문제	1.84(1.46-2.32)	2.63(1.84-3.76)		1.14(0.81-1.60)	2.37(1.48-3.78)	**
외모(신체상/키/기타)	2.29(1.90-2.76)	3.86(2.86-5.19)	*	1.95(1.49-2.55)	3.59(2.38-5.40)	*

^a공변량을 보정한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p < .05, **p < .01 남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한 로짓계수(Logit coefficients)의 성별차이에 대한 유의 수준(Wald Chi-square test)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원인은 우울 및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스트레스 원인에 따른 영향의 크기에 있어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대부분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1$). 구체적으로 남녀학생 모두에서 다른 요인을 모두 통제한 이후에도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학생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호소한 그룹에 비해 우울의 위험이 남녀 각각 3.33배, 5.70배였으며 자살생각 위험은 3.86배, 6.33배였다. '부모와의 갈등'의 우울 및 자살생각에의 영향정도에 있어서 남녀학생 차이가 유의하였다($p<.01$). '가구의 경제상태'가 스트레스의 원인이라 응답한 남녀학생은 스트레스가 없는 학생그룹에 비해 우울 위험이 각각 3.80배 및 5.17배 높았다. 한편 '가구의 경제상태'가 스트레스 원인인 경우 자살생각 위험은 남녀 각각 3.17배 및 5.37배였으며 이러한 남녀차이는 유의하였다($p<.01$). 친구들과의 갈등, 학교 폭력 및 따돌림 등의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스트레스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우울 위험이 남학생은 4.34배, 여학생은 7.56배 높았으며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또한 친구들과의 갈등, 학교 폭력 및 따돌림 등의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자살생각의 위험이 남학생의 경우 3.67배, 여학생의 경우 6.27배 높았다.

IV. 고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 청소년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과 자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학년, 학업성취도, 부모와 동거유형, 주관적 가구경제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부모와 또래 및 교사와의 갈등, 외모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성별에 따라 그 정

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우울 분포율이 남녀 각각 42.9% 및 31.4%이었고, 여학생의 23.1%와 남학생의 14.7%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이 우울[8][14]과 자살[9][15]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다시금 입증해 주는 결과이다.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변수들 중 주관적 건강수준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학업성적, 부모와의 동거유형, 경제수준, 스트레스 원인 등)의 영향정도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었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의 갈등, 외모, 교우관계의 순이었다. 이 모든 스트레스 원인은 남녀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로 우울해 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생각하지만, 이러한 종류의 스트레스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또래 친구들도 겪는 보편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중 남녀 청소년 모두의 우울과 자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변인은 친구들과의 갈등, 학교 폭력 및 따돌림 등을 포함한 교우관계 스트레스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선행연구[5][14]와 맥을 같이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청소년의 우울이나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의 차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 특별히 구체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원인으로 한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에서 성별의 차이가 있었는지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트레스원(stressor)으로 인해 발생하는 남녀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학업스트레스와 달리 집단따돌림, 친구와의 갈등, 폭력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스트레스는 해당 청소년만이 겪는 고통이다. 흔히 이들 피해 청소년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이러한 스트레스를 막아 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

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해 하거나 더 나아가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5].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친구간의 갈등 등 교우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남녀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호소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우울 및 자살생각 위험이 약4~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정도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폭력으로 우울과 자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5][14]와 일치한다. 특히, 학교폭력을 경험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2배 이상 우울 및 자살 생각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보고[16]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우울하다는 감정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둘째, 친구들에게 따돌림 경험이 있는 남학생들은 이러한 교우관계 스트레스의 결과로 정서적인 건강보다는 신체적 건강이 나쁘다고 보고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17]. 셋째, 여자 청소년의 경우 친구와의 정서적 친밀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친구와의 갈등 및 거부를 당할 때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 및 자살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18].

부모와의 갈등의 경우, 남녀 학생 모두의 우울과 자살 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부모와 갈등이 있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우울해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 갈등이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14]와 일치한다. 청소년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를 통하여 심리적 안정을 제공 받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긍정적 지지는 청소년 자녀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 부모와 자녀 간의 열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4]. 부모와의

갈등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갈등을 지각하는 양상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남학생들이 부모와의 갈등을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기에 그에 대한 대응 및 반응이 외현적으로 표출되는 반면, 여학생들은 부모와의 갈등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는 등 갈등을 내면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19].

교사와의 갈등 또한 청소년 남녀 모두의 우울과 자살 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에 비해 교사와의 갈등이 높을수록 더 많이 우울했지만, 자살에 대해서는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교사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살위험성이 낮다는 연구결과[20]와 일치한다. 남녀 청소년들에게 있어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청소년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존재이므로, 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청소년들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업성취도간의 영향력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낮을수록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우울증상과 자살생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도 성적부진[7]은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남녀학생들은 청소년시기에 사회적 성역할을 확립해 나가게 되는데,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우리사회에서는 남학생의 비행행동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반면 여학생에게는 분노표출보다는 감정을 절제하도록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21].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외모에 관한 스트레스 변수 또한 우울 증상과 자살 생각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는데, 특히,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자살 생각을 더 자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더 많이 외모에 대한 문

제를 더 많이 고민하고[16], 이러한 고민으로 인해 자살하거나 우울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선행연구[22]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청소년들은 신체적 변화와 함께 외모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또래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그들과 비슷한 외적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23]. 외모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건강 문제에서 드러난 성별의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압력에 더 능동적으로 부합하려는 욕구가 강한 결과[22]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 이는 여성을 외모 중심으로 평가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학년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남녀 학생 모두 우울 증상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남녀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살의 경우, 여학생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학생의 경우 고3 때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3 학생들 중에서 자살생각을 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고 보고한 임성택 등[2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 임성택 등[24]은 성별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자살과 학년과의 역상관관계에 대해서 고등학생들의 경우 고등대학입시준비에 대한 압박감과 입시 스트레스에 장기간 노출되어 자살에 초연해진 결과로 해석하였다. 학년과 자살관계에 관한 상반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부모와의 동거유형 중, 한 부모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녀 청소년 모두는 양부모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해 높은 우울 수준과 자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2]에서도 이혼, 조손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정형태가 자살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은 우울, 자살 등과 같은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고 할 수 있다. 남녀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의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우울 증상과 자살 생각이 더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가구수준은 또한 청소년의 성별에 관계없이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3]의 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비해 주관적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을 적게 하였으며, 이러한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서적 기능이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도 있다[25]. 그러므로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건강상태를 증진할 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확인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패널자료 중 한 시점을 사용한 횡단적 연구로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행동의 유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에 따라, 성별차이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행동, 즉 내면화와 외현화 유형을 함께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 문항 중 교우관계는 폭력, 집단 따돌림, 친구간의 갈등 등을 모두 포함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중 어떤 교우관계 스트레스의 특정항목이 우울 및 자살생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및 자살생각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신뢰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우울 및 자살생각

의 요인들이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국내의 연구에서 본 도구로 측정된 우울 및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논문이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일정부분 신뢰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에 교우관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원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건강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반드시 성별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개입을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2009년 청소년 건강상태 온라인 자료를 사용하여 남녀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들의 우울과 자살문제를 예방하고 치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여러 영향 요인 중에서, 친구들과의 갈등, 학교 폭력 및 따돌림 등을 포함한 교우관계 스트레스가 남녀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우울해하고 자살 생각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과의 관계 즉, 부모 및 선생님과 관계 또한 청소년들의 우울과 자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 함께 연계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가족부 (2012), OECD Health data 2012, <http://stat.mw.go.kr/front/statData/publicationView.jsp?menuId=43&bbbsSeq=9&cnttSeq=19087&searchKey=&searchWord=&nPage=1>
2.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2), 국내 정신질환 관련 연구현황 파악 및 우울증 자살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pp.91-178.
3. 김보영, 이정숙 (2009), 청소년 자살생각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대한간호학회지, Vol.39(5);651-661.
4. 남석인, 최권호, 민지아 (2011),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자살성 남녀 비교: 서대문구 중학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Vol.42(2);467-491.
5. 박재연 (2010), 학교폭력이 청소년 우울 및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Vol.41(1);345-375.
6. 김애경 (2002), 지각된 부모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원과 초기 청소년의 우울 및 외현적 문제와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Vol.16(3);31-50.
7. 김기환, 전명희 (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지, Vol.9;128-152.
8. 김세원 (2010), 청소년 우울의 이질적 발달체적 및 예측요인에서의 성별 차이, Vol.21(1); 171-195.
9. 전영주, 이숙현 (2000),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Vol.7(1);221-246.
10. 보건복지부 (2012b), 2011년 사망원인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2/index.board
11. 윤재원 (2009), 학교 부적응과 부모의 기대수준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59-69.
12. Hankin, B.L., Mermelstein, R., & Roesch, L. (2007), Sex differences in adolescent depression: Stress exposure and reactivity models, Child Development, Vol.78(1);279-295.
13.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 제5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통계.
14. 유진영 (2011), 고교 청소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산업의료보건학회지, Vol.5(4);81-93.
15. 조성진, 전홍진, 김장규, 서동우, 김선욱, 함봉진,

- 서동혁, 정선주, 조맹제 (2002),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유병률과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Vol.41(6);1142-1155.
16. 노혜련, 이종익, 전구현 (2012), 초·중학생의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Vol.14(2);335-363.
17. Yang S.J., Kim J.M., Kim S.W., Shin I.S., Yoon J.S.(2006), Bullying and victimization behaviors in boys and girls at South Korean primary school, *J.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45(1);69-77.
18. 권재기 (2001),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양상과 내면화·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 *한국아동복지학*, Vol.34;95-125.
19. Cummings E.M., Daviers P.T., Simpson K.S. (1994), Marital conflict, gender, and children's appraisals and coping efficacy as mediators of child adjustment, *J. of Family Psychology*, Vol.8;141-149.
20. 김희숙, 박완주, 박경란, 김미향 (2012), 청소년의 인간관계가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Vol.21(1);278-287.
21. 박연숙, 김종립, 이선미 (2012), 거주형태에 따른 여고생들의 스트레스, 신체화, 분노 및 학교적응, *보건의료산업학회지*, Vol.6(3);183-195.
22. 조윤주 (2009), 외모 스트레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 정체감 및 우울감을 매개 변인으로, *대한가정학회지*, Vol.47(8);87-99.
23. 이명희 (2009), 청소년의 외모관심, 외모만족도와 생활만족도의 관계 연구, *한국복지학회지*, Vol.59(8);97-109.
24. 임성택, 주동범, 이금주 (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스트레스, 공부압박감의 종단적 추이와 해석, *직업교육연구*, Vol.29(1);23-43.
25. 빈성오, 강성욱, 정성화, 백혜진, 송근배 (2010), 대구광역시 일부 청소년의 영양상태 및 건강관련 행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Vol.11(2);57-69.

접수일자 2012년 11월 10일

심사일자 2012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12년 12월 19일